

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출산모 안정적 산후 회복 위해 제도 개선... 6개월 → 1년 연장 산후 관련 산부인과·한방과 외래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중

전북도가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라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기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물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후 빠른 건강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한우사육 안정화를 위한 수급관리 추진

도매가격 상승으로 사육의향 높아져 한우 공급 과잉상태 지속 한우 생산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홍보, 지원사업개편

전북도가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 과잉 및 가격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한우 수급관리를 위한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최근 한우 공급(도축)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등 한우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우 도축물량

은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으나 도매 가격(전국평균)은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21,169원/kg까지 상승했다. 도매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사육의향으로 이어져 2021년 도내 한우 사육마릿수는 약 3만마리(전국 339만)까지 증가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2023년까지 공급과잉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매가격도 하락세로 전망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조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 사육마릿수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가임암소와 1세미만 개체수 증가로 2023년까지 36만마리 수준으로 증가 전망된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한우 수급조절 안정화를 위해 사육과잉 우려사항 적극 홍보 및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사육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기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우 수급전망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하는

한편, 시·군 업무담당자 수급동향 설명 및 사업협의를 실시해 송아지 생산 최소화를 위해 저능력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입식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번식·입식·암소사육 및 사육장기화 유도관련 사업 추진 중단 및 사업변경 추진할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 공급과잉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곡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 등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수급조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의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을 통해 원활한 한우수급이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담화문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 모두 참여해 참정권 행사해 달라" 강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4일 전북 도민들에게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송 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3월 9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자, 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이후를 이끌 첫 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100년이 우리의 참여에 달려 있다. 도민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전북도는 철저한 방역과 빈틈없는 준비로 도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244개 투표소의 방역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태권마을 자문회의 개최 태권도 기공 ·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마을 관련 자문회의가 지난 4일 서울에 소재한 국가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9면)

부동층 표심 공략에 '긍정적 영향력'

조지훈 전 경진원장 '삼보일배'에 시민들 자발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시작한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의 삼보일배에 청년 기업인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시민들의 응원 물결도 이어지면서 부동층 표심공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여의동 제일아파트 인근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해 반월동 일대까지 뚝으로 적시며 '수도권 지인에게 전화걸기, 청년층 투표 참여 독려'를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이날 삼보일배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재인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푸드네이처 대표와 신동이 전북청년경제인협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행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문수 전북 청년경제인협회 감사, 김경태 이재명 선대위 전라북도특별단 상임부단장도 첫날에 이어 함께했다. 이정훈 대표는 "뉴스를 보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참여하게 됐다"며 "청년은 선거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관념을 깨고, 지역발전을 이룰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이 공동대표도 "사심(邪心)과 사욕(私慾)의 정치관계 밀려날 수는 없다는 말에 공감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나오게 됐다"며 삼보일배에 함께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간절함이 느껴지자면서 수도권 지인에게 전화하고 투표도 꼭 하겠다는 말로 조지훈 전 경진원장을 응원했다. 삼보일배의 시작점이었던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의 상인들은 "뾰고 살기 바쁘게 투표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삼보일배하는 모습을 보고 꼭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표로 민심을 보여주겠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해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정성 있는 행보에 자발적인 동참과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는 만큼 부동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상 기자

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단체 공모

사업계획 접수 15일까지

전북도는 '2022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 등을 공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70백만원의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단체, 친목 도모가 목적인 사업,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사·중복사업, 최근 3년간 연속해 지원받은 동일함 사업계획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수 있게 방역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계획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4월 중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장 소통을 실시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종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신마에 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지역의 내실 있는 단체와 함께, 도민들의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이 발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 및 내용을 참고하거나, 전북도 여성청소년과(☎280-2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산림기술자 의무교육 이수 기한 6월까지 연장

전북도는 산림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등이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도 추가 이수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지 않으면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교육은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7곳에서 진행되며, 도내에 진인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063-904-5618)에서 실시한다. 수강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길거리 큰절 호소, '큰 호응'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초박빙 대선판에 속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승리를 지지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의 '길거리 큰절'이 호응을 얻고 있다. 우 전 부지사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째 통행량이 많은 전주 시내 주요 거점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전폭표심 결집을 호소하는 '길거리 큰절'에 돌입했다. 이 같은 우 전 부지사의 길거리 큰절은 시작으로 다른 출마예정자들도 삼보일배, 119배로 동참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 전 부지사는 "이번 대선이 정말로 과거로 퇴행하는나 미래로 전진하는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주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당부하면서 무릎이 까지더라



도 엄지적, 경적으로 응원하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을 얻어 대선 전일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큰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후보들의 이재명 지지호소 119배, 삼보일배 릴레이 참여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며, 이런 열기가 투표장으로 이어지면 위대한 민주세력의 집단지성 발동에 힘입어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노총 선택, 국민의 선택과 부합"

유창희 전 부의장, 전주지역지부와 사전투표 참여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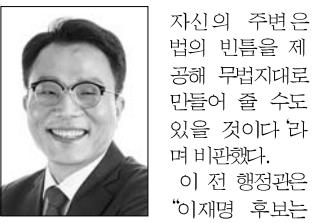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의장 박덕규)가 지난 4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유 부의장과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임원들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여 명의 조합원들은 노동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지지 선언에서 참석자들은 "이권대선주의의 단일화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아합정치"라고 규정짓고 "투표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140만 한국노총의 지지를 노동존중사회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한국노총의 선택이 2,500만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고 국민의 선택과도 부합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호남 1표가 전국 10표 될 수 있게"

이종선 전 靑 행정관

전주시장 출마 예정인 이종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과거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에 대한 김건희씨의 내부자 단기매매위반 논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주가지락은 수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며 증권시장을 교란시킨다"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빈약 일반시민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처럼 더디게 처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형편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에게는 무거운 법의 채찍을 가할 것이고



TV토론회에서 '내정동 의혹' 관련 특검을 진행해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자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표창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평가하며 "누가 공정하고 정의를 국정을 이끌고 나갈 사람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2%의 득표율을 목표로 설정했고 호남 1표가 전국 3표라고 강조하는 등 자신감까지 드러내고 있어 전주가 더 힘을 모아 1표가 전국 10표가 될 수 있게 투표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